

경전 속 음악-불교악기 정리

박범훈 교수 '한국불교음악사 연구'

"세종대왕 찬불가 작곡 법고 치면서 직접 불러"

박범훈 교수(52·중앙대 한국음악과)는 국립국악관현악단과 중앙국악관현악단의 초대단장을 역임하는 등 한국음악사에 빛나는 예술적 성취를 이룩한 음악가. 그가 5년 동안 컴퓨터 자판을 2번씩 바꿔가면서 한국불교음악사를 연구해 '불교음악 박사 1호'가 됐다. 모든 놀랄 것이다. 그 결과물이 경전 속 음악관련 내용을 집성한 <한국불교음악사 연구>(장영각)이다.

박 교수는 경전에 최대한 밀착해 불교음악의 전래와 수용, 그리고 전래 과정을 추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불교음악의 미래를 고찰한다.

우선 <삼국사기> 악지를 비롯 중 국문헌인 진양(악서), <사리영웅기>, <악학궤범>과 1920년 이왕직아 왕부에서 연주된 악기와 현재 전통 음악에 연주되고 있는 악기를 비교

하면서 불전에 기록된 악기의 우리나라 전래과정을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전통악기가 불전에 의해 우리나라에 최초로 알려지게 됐다는 주장은 논여겨볼 만하다. 적(笛)·법라(法螺)·목어(木魚) 등 경전에 기록된 53종의 악기 가운데 현재 활용되고 있는 악기는 불과 11종. 1920년대까지는 53종의 악기가 대부분 사용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연주법 등이 전수되지 않아 사라진 것으로 밝히고 있다.

또 이책에서는 '음악(音樂)'이란 용어가 일제시대 일본에 의해 통용된 것이 아니라 불전에 기록되어 있는 용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무량수경> 등 42종의 경전에서 찾아낸 불교음악용어는 모두 110종. 그 가운데 <법원주립>이 가장 많은 41 종류의 음악용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악, 법고, 여산, 패와, 찬, 영가, 가영, 음악 등의 용어들이 경전을 통하여 일본보다 우리나라에 먼저 전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보면



회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박 교수는 이에 대해 서양음악이 들어오면서 일본에서 번역된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최불송유정책을 편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직접 찬불가를 작곡했다는 내용이 흥미롭다. 불상점안식 따 법라를 불고 법고를 치면서 새로운 찬불가를 불렀다는 <사리영웅기>의 기록이 근거다. 이 책은 근·현대 이루어진 창

작 찬불가의 탄생과 개화과정도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스님-재가불자-방송 및 음악가 등으로 찬불가의 창작 주체가 전환되는 과정과 찬불가의 발전 방안을 제시한 제언은 새겨 들을 만하다.

특히 1920년대 찬불가를 작사 작곡한 용성 스님을 창작 찬불가를 표시로 보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1939년 김기수가 지은 '황하만년지곡'이 국악창작곡의 효시라는 사실을 뒤엎기 때문이다.

불전에 기록된 불교음악, 불교음악의 전래, 우리나라의 첫 불교음악의 한국적 전개, 창작 찬불가 등 모두 4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불교음악통사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방대하고 치밀하다.

박범훈 교수는 "동양음악의 원류라고 하는 아악적인 음악관이 이미 불교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을 경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며 "불교음악의 발전을 위해서는 작곡·지휘·기악·성악·이론 등 다양한 분야의 불교음악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값 2만5천원.

김종근 기자 (gamja@buddhania.com)

"중경목록" '일체경음의' 한글대장경 두권 출간

동국대학교 역경원에서 한글대장경 <중경목록>과 <일체경음의>가 이 나란히 출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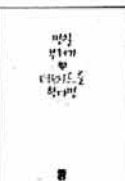
<중경목록>에는 수나라 때 법경 스님을 비롯 20여 명의 스님들이 관련한 중경목록(7권), 당나라 정태 스님의 중경목록(5권)과 명진 스님의 대주강중경목록(15권), 고려시대 때 편찬한 대장목록(3권) 등 5종의 불전 목록이 실려있다.

이 가운데 중경목록은 초기 경전 번역사 이해의 중요한 문헌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대장목록은 서지학적으로 높이 평가되는 저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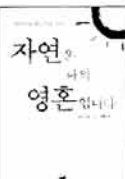
<일체경음의>는 일종의 대장경 사전으로 집신주삼보감통전(4권), 남해 기귀내법전(4권), 대당서역구법고승전(2권)의 음의(音韻)를 풀이하고 있다. 각권 값 1만5천원.

김종근 기자

새로나온 책



▲만일 부처가 데이트를 한다면(살로테 캐슬 지음, 서민수 옮김, 도솔)= '만일 부처가 데이트를 한다면'이라는 가정 하에 진실한 사랑을 만들어 가는 방법을 다루고 있다. 부처님 시각으로 데이트를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지비와 애정, 친절을 베풀어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받아들여라. 욕심을 부리지 말라... 사랑을 위한 준비, 욕망을 일깨우자. 신성한 불꽃 속으로 등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값 7천9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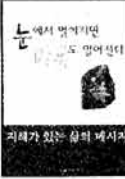
▲자연은 나의 영혼입니다(제임스 스톤 지음, 정영문 옮김, 모색)= 미국 환경전문번역사 제임스 스톤의 자연명상 에세이. 지구 환경의 운명이 우리들 각자의 행동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밝히며, 환경 친화적인 자연명상법을 소개한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을 시작으로, 세수하고, 밥 먹고, 출근하면서, 일하면서, 걸으면서, 다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루 일과 속에서 어떻게 명상할 것인가가 흥미롭게 펼쳐진다. 값 7천5백원.



▲또 다른 나라(메리 파이프 지음, 공경희 옮김, 모색)= 젊은이들은 아직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인 노년의 인생, 부모와 자식간의 인간 관계와 건강, 가족이 겪는 갈등과 지혜, 사랑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가족 가치의 회복을 제시하는 에세이. 늙어 가는 부모에 대한 올바른 이해, 부모와 자녀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는 기술, 노년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서이기도 하다. 값 1만원.



▲꽃병을 든 아바, 아이와 함께 크는 이야기(이강욱 지음, 풀베개)= 마흔이 넘은 나이에 얻은 첫 아들을 혼자서 키워 왔던 영남대 이강욱 교수의 육아 에세이. 아내를 유학 보내고 뒷맛이 아 이를 도맡아 키웠던 남편, 밤마다 깨어나 울어대는 아이로 인해 14일 동안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도 화를 내지 않았던 아바, 아이 업고 제자의 결혼식에 참석했던 교수님, 아름다운 아바와 해맑은 아이의 행복하고 눈물겨운 사랑이 이야기가 진지하게 펼쳐진다. 값 8천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이상각 지음, 지혜의 나무)= 삶에 대한 성자들의 통찰이 배꼽이 담겨있는 책이다. 성자들 특유의 명쾌한 예화, 그리고 말의 가락에 빠져들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삶이란 이런 것이어야 하는구나'라는 각성과 함께, 성자들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 가르치고자 했던 것, 뛰어 넘고자 했던 것들이 그대로 전해온다. 값 7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역시인 집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선방일기	지 허	역시인문
2	오두막 편지	법 정	선 레
3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배반같이	전 재 성	선 재
4	책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정 타	호 립
5	적멸의 즐거움	정 유	우 리
6	지장신앙 지장기도법	김 현 준	효 립
7	중경	원 성	이 레
8	깨달음의 열쇠-반야심경	김새·형찬	한국불교연구원
9	김용옥 선생, 그건 아홉시다	변 상 설	시 공 사
10	만행-하버드에서 화제사까지	현 각	열 립 원

도서 안내: (02)737-0695

"불교학술서 출판은 불성의 종자 심는 일"

창사 20주년 맞은 윤재승 민족사 사장



"불교연구의 결실을 담은 학술서 출판은 불성의 종자를 심는 일입니다."

9일로 창사 20주년을 맞는 민족사 윤재승 대표는 남은 세월도 오직 학술서 한 우물을 파겠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4만 권에서 출간된 책은 약 400종 2백만 여권. 이 가운데 학술서는 60%를 차지한다. 윤 대표가 80년 5월 처음으로 펴낸 여인구 씨의 <불교의 사회사상> 이후 20년간 일궈낸 결실이다. 그가 출판에 뛰어든 배경은 의외로 간단하다. 청년시절 학술서를 좋아했던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학술서 출간에 대한 포

부는 남다르다. "학술서의 의미를 먹고 살아왔습니다. 불교의 애정이 담긴 불교학자들의 욕구, 그리고 학술서 속에 담긴 불법의 진수, 그리고 누군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전문분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새글 공모전' 필자 발굴

윤 대표가 20년 동안 꾸준히 학술서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불교학자 못지 않은 연구활동이다. 그는 불교학계의 연구동향을 살피기 위해 새로운 논문들을 빠짐없이 읽는다. 그렇기 때문에 학술서를 낼 수 없습니

것이 변함없는 출판철학이다. 윤 대표는 출판뿐 아니라 필자발굴에도 남다른 노력을 하고 있다. '새 글 공모전'이 대표적이다. 아무리 좋은 기획이라도 글을 쓸 작가가 없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공모전을 한 이면에는 몇 차례 시도한 각종 기획들이 수포로 돌아갔던 것이 크게 작용했다. 창사 20주년을 맞아 '한국인물고승평전'과 이능화의 <조선불교통사> 완역도 기획했다. 그러나 필자의 부족으로 또다시 무산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필자 발굴은 그에게 있어 또 다른 화두인 셈이다.

"불교출판인들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뀔 때가 왔습니다. 그동안의 출판은 의미가 없습니

다. 필자발굴, 출판방식 등을 새롭게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교출판은 설자리를 잃게 됩니다."

불서독자층 확대 '골목'

불교학술출판을 탄탄하게 자리매김하는 것이 개인적 바람이라는 윤 대표는 이를 위해 무엇보다 불자 독자층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무리 좋은 책을 출간해도 읽는 사람이 없으면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돈을 벌기 위해 잘 팔리는 책을 앞 다퉈 내는 출판공토에서 학술서만을 고집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윤재승 대표는 그 어려운 일을 오히려 즐겁게 하고 있다. 김종근 기자



'티벳사자의 서 오디오북 바르도'

'티벳 사자의 서'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오디오북 '바르도(BARDO)'가 나왔다. 티벳 사자의 서는 티벳어로 '바르도 퇴탈(bardo thodal)'이라 한다. 퇴탈이란 '듣는 것을 통하여 영원한 해탈에 이른다'는 뜻. 즉 사람이 죽어서 환생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미리 들려줌으로서 죽음의 순간 당황하지 않고 삶과 죽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 영원한 해탈을 얻을 수 있게 한다는 가르침이다. CD 3장과 테이프 2개로 구성돼 있다. 값 CD 3장 5만원, 테이프 2개 2만8천원.

'티벳해탈의 서' 번역 출간

티벳의 비전 <티벳 해탈의 서>(정신세계사)가 번역 출간됐다. 이 경전을 지은 파드마삼바라는 인도의 티벳 최고 스승으로 일컬어지는 수행자. 그의 삶과 가르침, 그리고 대승 불교의 진수가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의 가르침은, 살아 있는 어떤 것도 개별화된 실체를 갖지 않으며, 오직 마음만이 실재한다는 것이다. 이 책에는 파드마삼바의 수 제자로 알려진 초갈이 쓴 '위대한 스승 파드마삼바의 삶과 가르침', '자기 해방이라 부르는 마음 알기와 실제 보기의 요가', '스승 파담과 상계의 유언적 가르침'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값 1만5천원. 김종근 기자



지장보살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예찬문

김현준 편역
신국판
값 5,000원

지장신앙

* 지장기도법

김현준 지음 / 4x6 판 / 값 3,500원

1. 지장보살, 어떠한 분인가?
· 대원의 본존
· 무한자비와 파지옥의 지장보살
· 현재의 행복과 지장보살

2. 지장기도법
· 생활속의 지장기도
· 영가천도기도법
· 종합적인 지장기도

기도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취가 달라집니다. 이 책은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지장경 특경 및 지장보살예찬과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이 책을 펼쳐두고, 각 장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지장보살의 가피 속에서 틀림없이 업장을 소멸하고 영가천도·소원성취·향상된 삶을 이룩할 수 있게 됩니다. 감히 권합니다. 이책에 의지하여 기도를 해보시길!

흔히들 지장보살은 영가천도의 보살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장신앙 속에는 영가천도뿐만이 아니라 행복과 깨달음, 성불의 비결까지 간직되어 있습니다.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함께 영가천도기도를 비롯하여, 생활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지장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의 알기 쉬운 불교서적

관음신앙·관음기도법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필독서
4x6 판 / 값 3,500원

관음신앙의 뿌리에서부터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쉽고 재미있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자들 대부분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관음의 가피와 기도성취를 원한다면 꼭 이 책을 펼쳐 드십시오.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신국판 / 값 5,000원

많은 불자들이 아침 저녁으로 예불문을 외우며 절을 합니다. 그러나 예불문 속에 담긴 의미를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만약 예불문 속에 깃들어 있는 의미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 예불을 올린다면, 참된 예불은 물론삼보의 가피를 쉽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불을 올리는 불자들이 궁금해하면서도 마땅히 답을 얻기 어려웠던 것들, 이 책에 모두 담았습니다.

육바라밀 수행법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반야바라밀!
4x6 판 / 값 3,500원

육바라밀 수행법은 고해의 증생을 피안의 세계로 인도하는 큰 배입니다. 이 여섯 가지 바라밀의 정신을 깨달아 실천하면 누구나 행복과 성불을 보장받게 됩니다. <육바라밀 수행법>이 이권의 책으로 행복하고 청정한 삶을 이루는 지름길을 만나십시오.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신국판 / 값 7,000원

절에 오래 다닌 불자들조차도 무심히 흘러보냈던 사찰 곳곳에 간직되어 있는 숨겨진 의미들……,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찰 초입(初入口)의 일주문에서부터 사물(四物), 석동, 담, 그리고 여러 법당 등에 담겨진 의미와 구조, 변천 등을 깊이 있게 다룬 이 책은 독자들에게 불교예술과 사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입니다.